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시행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장동물복지 향상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재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동물 복지인증 도형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비인증 원재료와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표시 불가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박승민 (044-201-2620)
			사무관	유 청 (044-201-2615)
			사무관	이상록 (044-201-2626)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책임자	팀 장	김현우 (044-201-2651)
		담당자	사무관	강종수 (044-201-2661)







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종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사·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 아메리칸 스타퍼드셔 테리어, 스타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른 및 그 잡종의 개







평가/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 이후 3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3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벌금

사·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사·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사·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 등 없이 가련의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가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취급보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행한 3개월 미만의 동행대상행위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행대상행위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행대상행위가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